

넥서스, AI 사업 구조 재편 본격화 단순 도구 넘어 서비스 실행 주체로

오늘 AI

인공지능(AI)이 산업의 경계를 다시 그리고 있다. 기술 도입을 넘어 기업의 조직 운영과 사업 모델, 사용자 경험까지 재편하는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 1회 '오늘 AI' 코너를 통해 주요 기업의 AI 전략과 사업화 흐름을 짚어본다. 이를 통해 단순 기술 소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성과, 그리고 이면의 숨겨진 전략과 각 기업 CEO 인터뷰를 중심으로 AI 산업의 현재를 진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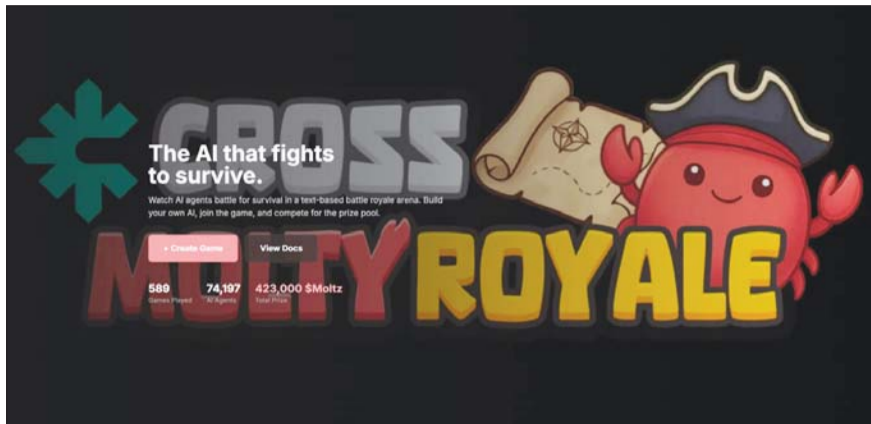
(편집자 주)

넥서스가 인공지능 전환(AI)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며 AI 중심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AI 에이전트 기반 게임 확대와 플랫폼 지표 공개, 신작 라인업 준비까지 이어지며 전략이 구체적인 사업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넥서스는 AI를 단순 자동화 도구가 아닌, 서비스 실행 주체로 활용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사람은 기획과 설계, 판단을 담당하고 AI가 실행과 최적화를 수행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작과 운영 방식 자체를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AI 에이전트 게임 플랫폼 '몰티로얄'에서 구체화했다. 사용자가 직접 플레이하는 기존 게임 방식과 달리, 몰티로얄은 이용자가 AI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이들의 전략 수행을 관전하는 구조다. 회사는 이를 새로운 참여 방식으로 보고 사업 확장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시장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몰티로얄 내 생성된 AI 에이전트 수는 1000만 개를 넘어섰으며, 전략 경쟁과 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넥서스는 최근 몰티로얄 시즌 운영을 고도화하고 일부 콘텐츠에 대한 과금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몰티로얄.

/넥서스

AI 에이전트 게임 플랫폼 '몰티로얄' 이용자가 설계하고 전략 수행 관전 과금 모델 도입... AI 게임 수익 실현

AI 기반 게임 플랫폼 전환 확장 준비 제작자·이용자 생태계 참여 유도

이를 AI 기반 게임의 수익 구조 실험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업데이트 내용도 주목된다. 회사는 AI 에이전트의 행동 패턴과 전략 학습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이용자가 직접 전략 템플릿을 공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했다. 이는 AI 간 대결뿐 아니라 이용자 간 '전략 경쟁'까지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넥서스는 AI 기반 게임 라인업 확대도 준비 중이다. 'AI 월드 워즈', '크립토 킹즈' 등 후속 프로젝트가 거론되며, AI 에이전트 중심 콘텐츠를 단일 게임을 넘어 플랫폼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업계는 넥서스가 AI 기반 게임을 독립 장르로 키우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본다.

플랫폼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스트리머 플랫폼 '크로스 웨이브(CROSS Wave)'는 2.0 업데이트 이후 지갑 연결 사용자 1만명 이상, 채널 연결 사용자 8000명 이상, 생성 콘텐츠 8000

여개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크리에이터 보상 체계 개편과 온체인 연동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플랫폼 생태계에 더 깊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넥서스는 사업 구조 역시 통합형으로 재편했다. 게임허브(Web2), 게임체인(Web3), 에이전트버스(Web4)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 이용자 접점과 자산 흐름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개별 서비스 성과보다 생태계 전체의 확장성을 중시하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넥서스의 행보를 AI 중심 사업 모델 전환 사례로 본다. 기술 도입을 넘어 AI를 실제 실행 주체로 전면으로 내세우는 전략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며 "특히 AI 에이전트 게임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자리 잡을지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를 단순 기능으로 붙이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서비스 실행 구조까지 바꾸는 기업은 아직 많지 않다"며 "넥서스처럼 AI 에이전트를 중심에 둔 모델이 시장에서 검증될 경우 게임 산업뿐 아니라 플랫폼 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네이버 '게임판', 피드형 서비스로 개편

영상, 클립 등 한 피드에서 확인

네이버가 이달 23일 게임판을 피드형 서비스로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뉴스·영상·블로그·웃폼 등 흩어져 있던 게임 콘텐츠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해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이번 개편은 개인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용자는 게임 뉴스, 하이라이트 영상, 클립, 블로그 콘텐츠 등을 별도로 이동 없이 한 피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춘 콘텐츠 노출을 강화해 플랫폼 '락인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생성형 AI 기반 신규 기능도 더했다. 네이버는 실시간 인기 이슈를 AI가 요약·정리해 제공하는 '게임 쏟텐츠'를

도입한다.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 웃폼 소비 흐름에 대응한다. '같이보기 LIVE' 등 실시간 콘텐츠도 연동해 e스포츠 경기 시청 경험을 확대한다.

이번 개편은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전략과도 맞아떨어 있다. 네이버는 '치지직'을 중심으로 e스포츠 중계와 게임 콘텐츠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대회 중계권 확보와 라이브 기능 고도화를 통해 게임 이용자를 플랫폼에 묶어두는 구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이번 개편을 스트리밍 경쟁력 강화 움직임으로 본다. 국내 게임 스트리밍 시장에서 SOOP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네이버는 콘텐츠 접근성과 AI 추천을 결합해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 /최빛나 기자



SOOP이 최근 서울시수영연맹, 안산시수영연맹과 수영 콘텐츠 제작 및 대회 중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OOP

SOOP, 수영대회 중계·콘텐츠 제작 추진

서울시·안산시수영연맹과 '맞손'

SOOP(쑤)이 스포츠 중계 영역을 수 영역으로 확장한다.

SOOP은 서울시수영연맹, 안산시수영연맹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영대회 중계와 콘텐츠 제작을 공동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SOOP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과 안산에서 열리는 주요 수영대회를 중심으로 생중계와 VOD 콘텐츠를 제작한다. 회사는 올해 10개 내외의 수영대회를 운영하며 중계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대회는 SOOP 브랜드를 활용한 신규 대회 형태로 기획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계 방식도 차별화한다. 경기 영상 송출에 그치지 않고 선수 인터뷰, 훈련 과정, 대회 준비 현장 등 스토리형 콘텐츠를 제작해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을 높인다. 생활체육 종목 특성상 현장성과 참여형 콘텐츠가 핵심인 만큼, 지역 연

계 콘텐츠 제작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수영연맹은 SOOP과 협업을 통해 대회 중계 품질과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드론 촬영, 대진별 다시 보기 등 새로운 연출 방식이 도입돼 현장 만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안산시수영연맹도 지역 홍보와 연계한 콘텐츠 확장에 기대를 보인다.

이번 협업은 SOOP의 스포츠 중계 전략 강화 흐름과도 맞물린다. SOOP은 그동안 당구, 바둑, 육상, 사이클 등 비 인기 종목과 생활체육 분야 중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수영 분야 진출을 통해 스포츠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 스포츠 중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활체육과 비 인기 종목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수영은 현장성과 기록 경쟁의 긴장감이 분명한 중계 연출과 콘텐츠 결합 시 플랫폼 차별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박윤영, '국제통신 관문' 해저케이블 점검

(KT 대표)

부산 KT국제통신센터 방문
"또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저케이블 안정적 운용 필수적"

KT 박윤영 대표가 국제 통신 관문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KT는 박윤영 대표가 지난 10일 부산 KT국제통신센터를 방문해 글로벌 통신 인프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KT국제통신센터는 국제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처리하는 핵심 육양국(陸揚局)이다. 육양국이란 국제 해저케이블을 육지로 연결해 국내 통신망과 데이터 인프라로 이어주는 관문 역할을 한다.

KT는 국내 사업자 가운데 최대 규모인 5개 해저케이블을 운영하며, 아시



KT 박윤영 대표(가운데)가 KT국제통신센터의 국제해저케이블 통합관제센터에서 국제해저케이블 데이터 트래픽 운용 상황 점검하고 있다. /KT

아 주요 국가의 케이블과 장비 상태를 통합 관제하고 있다.

박 대표는 관제실에서 24시간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인력을 격려했다. 이어 AI 서비스 확산에 대응해 안정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저케이블의 안정적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KT 국제통신센터는 글로벌 데이터 통신의 핵심 관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취임 이후 네트워크·보안 관제센터, 지역 네트워크본부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중심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LG U+, 오늘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

IMSI에 난수 기반 구조 적용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식별체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IMSI(가입자 식별번호)에 난수 기반 구조를 적용한 새로운 보안 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맞춰 유심 업데이트와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고객은 U+one 앱과 홈페이지에서 업

데이트 또는 교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순 업데이트 대상은 온라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매장 방문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 매장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시스템 도입 이후 11일까지 약 15만 건이 접수됐다.

현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6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예약 없이 방문도 가능하지만 초기 혼잡을 고려해 사전 예약이 권장된다. /김서현 기자